아케노베 광산 메이신 전차는 아케노베에서 산간지역의 터널을 지나 미코바타 정련공장까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6km에 걸친 철도로 1929년에 건설되었습니다. 화물열차 외에도 광산 노동자들과 두 마을을 통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객차도 운행되었습니다. 객차의 승차 운임은 딱 1엔이었기 때문에 열차는 ‘1엔 전차’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 전차는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운행되었습니다. 객차 중 3량이 아케노베 광산 근처에 지금도 전시되어 있으며, 그중 1량은 방문객을 위해 정비되어 새로 건설한 150m의 선로에서 승차할 수 있습니다. 4월에서 11월 사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여름방학, 골든위크 등 특정일에 승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